

한라시론



김양훈 프리랜서 작가

2014년 3월 이른 봄날이었다. 금의환황하는 사내를 태운 서울발 비행기가 제주국제공항에 내렸다. 트랩을 내려온 그는 관덕정을 향했다. 관덕정 마당은 제주의 아픈 역사가 켜켜이 서린 곳이다. 제주목관아 옛 마당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가 마이크 앞에 섰다. 단상 앞에는 '어머니! 원희통입니다. 제 전부를 바치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제주를 바꾸고,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그의 외침에 사람들은 우렁찬 박수를 보냈다. 그의 꿈과 포부의 종착점은 좁은 섬나라가 아니었다. 선거결과는 따 놓은 당상이었다.

제주의 아들과 제주의 영웅

제주의 아들이 돌아왔으며 가슴을 펴고 사자후를 토하는 그는 마치 로마의 개선장군 시저처럼 보였다. 그날 이후 그에게는 '제주의 아들'이란 호칭이 따라다녔다. 제주를 어머니라 부르며 스스로를 제주의 아들이라 당당하게 말하는 자신감이 어디서 오는지 사람들은 다 알고도 남았다. 시험지 정답을 알아맞히는 그의 실력 때문이다. 세상사의 문제지는 녹녹지 않다. 해법이 어려워 정답이 없는 경우도 많다. 도시사 재임 중 가장 뜨거웠던 제2공항건설 문제도 그 하나였다.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던 그의 제2공항건설 밀어붙이기는 찬반 도민 여론조사에서 거부됐다. 그러나 그는 이 거부를 거부했다. 엘리트 의식에 젖은 사람이라는 비판에 그의 대답은 무엇일까? 민주주의 반대는 엘리트주의다. 민주적 다수결이 해답은 아니라고 우길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G. J. 가세트가

설파한 엘리트 계급이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대중은 어리석다는 밑저리가 깔려 있다. 영화 '내부자들'의 한 대목이 떠오른다. "대중은 개돼지라서..." 그는 제2공항을 비롯해 산적한 제주의 현안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지사직을 사퇴했다. 야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정치적 징검다리 제주를 건너뛰고 대한민국을 바꾸려 가겠다는 데 누가 말할 것인가? 사람은 어느 부모에게서 탄생하느냐 보다는 어떤 곳에서 태어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다. 아이는 공동체가 기억하는 정서를 공유하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공동체 정서는 사회적 느낌이고 모태 기억이기도 하다. 그 기억이 희미해져 버리면 공동체 정서를 공유하기 어렵다. 기억이 살아있어야 서로 어깨를 걸고 공감의 눈물을 흘릴 수 있다. 모슬봉 기슭 공동묘지에는 신축항쟁

의 장두 이재수 어머니의 묘가 있다. 봉분 앞에는 조그만 말각형 묘비가 서 있는데, 1940년 3월 안성리·인성리·보성리 대정골 주민들이 세웠다. 앞면에 제주영웅 이재수 모 송씨묘(濟州英雄李在守 母 宋氏墓)라 새겼다. 대한제국의 평리원 재판에 따라 민란의 괴수로 교수형을 받은 장두 이재수의 주검은 청파(靑坡)의 죄수묘지에 묻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주민증을 위해 분투하다 끝내 생명을 바친 대정군의 관노 이재수는 스물네 살 청년이었다.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이재수' 기획전이 탐라미술협회 주관으로 11월 30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기획전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영웅 이재수는 100년이 훌쩍 넘어서도 뜨거웠던 그날의 공동체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머리 좋은 자칭 '제주의 아들' 이미지에 가슴 뜨거웠던 '제주의 영웅'이 오버랩 되는 것이다.

사설

'물'공론화 특별기획... 정책 대전환 계기로

정경 제주와 삼다수라는 최고의 브랜드가치는 당연 화산 암반수라는 맑고 깨끗한 물에서 비롯된다. 그만큼 제주의 물이 환경의 보고(寶庫) 상징이자, 미래 제주의 최고자원이라는 얘기다. 최근 제주의 생명수가 각종 난개발과 지나친 사용,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청파(靑坡)의 죄수묘지에 묻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주민증을 위해 분투하다 끝내 생명을 바친 대정군의 관노 이재수는 스물네 살 청년이었다.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이재수' 기획전이 탐라미술협회 주관으로 11월 30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기획전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영웅 이재수는 100년이 훌쩍 넘어서도 뜨거웠던 그날의 공동체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머리 좋은 자칭 '제주의 아들' 이미지에 가슴 뜨거웠던 '제주의 영웅'이 오버랩 되는 것이다.

지정받는 상하수도 행정에서부터 물의 가치와 소중함, 물 문화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정책 대안을 찾는다. 지하수 위기에 대한 도민의 식조사도 보인다. 제주가 현재 제주의 생명수가 각종 난개발과 지나친 사용,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청파(靑坡)의 죄수묘지에 묻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제주민증을 위해 분투하다 끝내 생명을 바친 대정군의 관노 이재수는 스물네 살 청년이었다.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념하는 '청년 이재수' 기획전이 탐라미술협회 주관으로 11월 30일까지 제주4·3평화재단 기획전실에서 열리고 있다. 제주영웅 이재수는 100년이 훌쩍 넘어서도 뜨거웠던 그날의 공동체 기억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머리 좋은 자칭 '제주의 아들' 이미지에 가슴 뜨거웠던 '제주의 영웅'이 오버랩 되는 것이다.

편집국 25시

먹구름



강민성 행정사회부 기자 kms6510@halla.com

평생 폭도로 낙인찍혀 고통받았던 현실이 외면당했다. 사실상 패소다. 재판부는 선고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불법행위로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 "후유장애가 불법행위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 볼 수 없다"고 사유를 밝히며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4·3사건에서 제주도민이 희생당한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많은 이들이 이유 없이 학살당해야 했고, 집을 떠나야 했으며, 가족들과 뿔뿔히 흩어져 생존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과거가 아닌 현재까지 이어져오는 아픔이다. 이들이 겪어온 후유장애와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지는가? 기본은 어땠을까. 차갑고 무서운 형무소 안에서 고된 시간을 보내야 했던 이들에게 봄은 없는 것일까. 무슨 잘못이 있었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아픔을 겪어야 했을까. 이들은 없었던 일을 지어내며 법원 앞에 앉은 것일까. 신성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일까. 소송에서 그렇게 많이 보이던 정신적 위자료란 단어는 여기서 통용되지 않은 것일까. 문득 고민에 잠겨본다. 동백꽃 위에 먹구름이 가득 겹다.

뉴스-in

원희룡 "모범 보이지 못 해 송구"

부인 방역 수칙 위반 사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부인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사과.

원 전 지사는 13일 SNS에서 "제 아내 강윤형이 경북 경산시 카페 모임에서 거리두기 인원 수 2명 초과로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모범을 보아야 할 후보 가족의 입장에서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언급.

이어 그는 "한 표 한 표가 너무 아쉽고 절실하다 보니 방역 지침을 순간 깜빡했다고 한다"며 "제 아내의 실수로 저를 위한다 생긴 일이기에 저도 마음에서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고 거듭 사과. 이상민기자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제주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업소를 119개소에서 올해 내로 130여개 업소로 확대·지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모집.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등의 개인서비스업 중 현지실사와 평가를 거쳐 선정될 예정으로 상수도·전기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지원.

시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과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김태업 시장 청찬 일색

○...김대진 의원이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 소속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라며 김태업 시장에 대해 청찬 일색의 평가를 높였다.

김 의원은 "김 시장은 취임 후 전개중인 주민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위한 '화목한 현장행정'을 비롯해 전국 최초 민간의원 유치, 도심속 하영울레 개장, 서귀포인정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역아동센터 조성 노력 등도 탁월했다"며 남은 임기기간 최선을 노력을 당부. 백규탁기자

눈뜨고 당하는 보이스포싱 막지 못하나

보이스포싱 범죄를 뿌리 뽑을 방법은 정녕 없는가. 경찰과 행정은 물론 일선 금융기관에서도 보이스포싱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지는데도 소용이 없다. 보이스포싱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말이다. 잇달아 하면 보이스포싱 범죄가 터지고 있다. 그것도 마치 채권자처럼 피해자를 만나서 돈을 가로챈 정도로 대범해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를 속여 현금을 편취한 보이스포싱 일당의 수거책이 붙었다. 사기혐의로 검거된 30대 남성 성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피해자에게 4차례 걸쳐 6500만원을 받아 일당에게 넘긴 혐의다. 또 경찰은 지난 2일 50대 남성을 상대로 짝 이자에 돈을 빌려주겠다고 200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의 뒤를 쫓고 있다. 특히 그동안 편취수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계좌이체형이 줄고 대면편취형은 급증 추세다. 실제로 계좌이체형은 2019년 479건, 2020년 210건, 올해 8월까지 104건으로 크게 줄었다. 반면 대면편취형은 2019년 7건, 지난해 127건, 올해 8월까지 204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그만큼 보이스포싱 수법이 대담해진 것이다.

보이스포싱 범죄가 얼마나 판치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주에서 발생하는 보이스포싱 피해액만 봐도 알 수 있다. 보이스포싱에 당하는 그 피해 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에서 발생한 연간 피해금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이스포싱 피해는 2018년 505건에 55억원이었다. 그 이듬해인 2019년에는 565건에 95억원, 지난해는 474건에 85억원에 이르고 있다. 누구나 보이스포싱에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고 양영표(대경토건(주) 대표) 아버지 제주양공 기화(국가유공자·향년 89세)께서 서기 2021년 10월 12일 13시 1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14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15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인 송희수
아들 양영표 며느리 박정호
진호 이희영
딸 양상열 사위 문규호
봉열 권병삼
장손 양진영
※ 연락처 : 양영표 010-2690-0884
양진호 010-3696-5067
문규호 010-2690-0884

부고 김재홍(前 메종글래드제주) 아버지 상신김공 호은(향년 84세)께서 서기 2021년 10월 13일 24시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10월 14일(목요일)
▶발인일시: 2021년 10월 15일(금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빈소(2층)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부인 함연림
아들 김재홍 며느리 이진희
딸 김민희 사위 김진우
손자 김민석 사위 김민우
손자 김민준 사위 김민준
※ 연락처 : 김재홍 010-2690-4834
이진희 010-5136-5834
김민희 010-2696-9389
김영미 010-8943-3487
김명선 010-5019-6181
최도윤 010-5548-0730
김순실 010-5896-1201
신안철 010-2074-9098
김양희 010-5870-0523
이원철 010-9953-9943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동래정씨 창생(유인, 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니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1년 10월 14일
아들 홍명진 며느리 김경숙
홍명균 강경희
홍옥희 사위 김동주
손희희 이상진
양희 김중현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명 : 양 김석은(1938. 1. 24생)
최후주소 : 제주시 서사로4길 10 (삼도일동)
상기자는 2021년 9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9월 29일 제주지방법원 21노단30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니다.
이에 민법 제10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북성로 20, 1001호(삼도이동, 로이빌)
2021년 10월 14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김 현 구

토지 급매 가격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4) 강정해안도로 점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7) 호근동 범섬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적률 미곡식품의학회원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하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